

## 사회적 변인간 상호작용에 따른 영어 부가의문문 사용에 관한 연구\*

김혜숙  
(건양대학교)

### Abstract

**Kim, Hye-Sook.** 2010. **A Study of the Use of English Tag Questions according to Interactions of Social Variable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18(1). This large-scale corpus study examined the gender differences in the use of tag questions in terms of three different social variables: age, education and private/public situations. Seven hundred and fifty-three tag questions were extracted from the British component of the International Corpus of English (ICE-GB), where social variables were parsed and tagged. Overall, women used a slightly higher number of tag questions: Out of the weighted 550 tag questions, men used 237 tag questions (43.1%) and women used 313 tag questions (56.9%). Among men, the number of tag questions increased with age while the number of tag questions decreased with age among women. The women in the 18-25 and 26-45 age brackets used more tag questions than the men in the same age brackets. But the women older than 45 used fewer tag questions than the men older than 45. Women with a secondary education used more tag questions than men with the same education. But both women and men with a tertiary education had about the same frequency of use of tag questions. In the private situations women used more tag questions than men while in the public situations men used more tag questions than women.

**Keywords:** tag questions, ICE-GB, gender differences, age, education, private/public situations

---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27-A00613)

## I. 서론

성에 따라 영어 부가의문문의 사용 빈도가 다르며,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드러내는 주요한 특성이라는 Lakoff(1975)의 주장은 현재까지도 남녀간 차이를 나타내는 대표적 언어 현상으로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은 Lakoff의 주장이 나온 시점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Dubois & Crouch 1975; O'Barr & Atkins 1980; Cameron 1992).

Lakoff(1975)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가의문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남성은 어려서부터 자신을 강하게 표현하도록 배우는 반면, 여성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보다는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경우에는 공손하게 해야 한다고 배우는 교육에 둔다. 그래서 남성은, 예를 들어, "That's the right button"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여성은 "That's the right button, isn't it?"이라고 비단정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Lakoff(1975)의 주장은 Coates(2004: 90)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 자신의 직관에 의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 Lakoff 자신도 "정확한 통계적 증거"(1975: 16)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Lakoff(1975)가 성과 언어 관련 후속 연구에 끼친 영향이 지대함을 고려해 볼 때, 그녀의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의 검증은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Lakoff(1975)의 주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가에 대한 입증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Lakoff(1975)의 주장을 구체적인 자료로 검증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Dubois와 Crouch(1975)는 학술대회 토론 시간에 이루어진 대화에서 여성은 부가의문문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데 비해, 남성은 33회 부가의문문을 사용했다는 자료를 근거로 Lakoff의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McMillan 외(1977)는 미국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과업 지향적 대화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가의문문을 더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Cameron(1992)의 경우에는 부가의문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별에 관계없이 권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고한다. 또한 Holmes(1995)는 부가의문문을 기능에 따라 범주화한 후, 성별에 따라 기능이 다른 부가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검증 노력은 대체로 단편적이거나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

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연구의 대상이 소규모에 한정되어 있어 Lakoff(1975)의 주장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 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Tottie와 Hoffmann(2006)의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신뢰할만한 답을 주고 있다. Tottie와 Hoffmann(2006)은 British National Corpus 구어 자료(BNC-S)<sup>1)</sup>와 Longman Spoken American Corpus(LSAC) 등의 대규모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의문문의 사용을 조사하여, 사회언어학적 변인들이 부가의문문 사용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들의 자료는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의 차이에 주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성에 따른 차이는 부분적으로만 언급되어 있다. 부분적이지만 이들의 자료에 따르면, 부가의문문의 사용에서 의미 있는 남녀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영국 영어(여성 4,647 pmw<sup>2)</sup> vs. 남성 4,209 pmw)와 미국 영어(여성 489 pmw vs. 남성 453 pmw)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부가의문문을 조금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남녀 성 차이를 포함하여 나이, 학력, 공적/사적 상황 등 주요 사회적 변인의 관점에서 영어 부가의문문의 사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변인의 개별적 특성 파악뿐만 아니라, 변인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특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본 연구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을 활용하기 위하여 최근 구축된 British component of the International Corpus of English(ICE-GB) 및 ICECUP 검색 도구를 이용하였다.

## II. 부가의문문에 대한 선행 연구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부가의문문에 대한 연구가 남녀의 차이에 집중하게 된 것은 아마도 Lakoff(1975)의 연구가 나오게 되었던 사회·정치적인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즉, 폭넓게는 인권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남녀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Lakoff의 연구가 사회 이념적 함의에 관심이 쏠리게 되었고, 학자들의 관심도 객관적인 검

1) BNC-S: the spoken component of the British National Corpus

2) pmw = per million words

증을 포함한 사회언어학적 탐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Lakoff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제시한 여러 현상 중에서도 특히 부가의문문이 관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특히 성별에 따른 부가의문문의 빈도수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이 있다. Sachs(1987), McMillan 외(1977) 등은 여성이 남성보다 부가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Dubois와 Crouch(1975) 등은 남성이 여성보다 부가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Cameron 외(1989) 등은 부가의문문을 사용하는데 성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부가의문문을 많이 사용한다는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도 있다. Siegler와 Siegler(1976), Newcombe와 Arnkoff(1979) 등은 여성과 남성이 실제로는 부가의문문을 동일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성이 부가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했다고 생각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Bernard(1982)는 부가의문문이 행위 중심으로 표현하는 남성보다는 감정과 정서 위주로 표현하는 여성에게 더 적당하다고 보고한다.

부가의문문을 기능면에서 분석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예를 들어, Holmes(1983, 1992, 1995), Algeo(1988, 1990), Coates(1996, 2004), Coates와 Cameron(1988), Eckert와 McConnell-Ginet(2003), Tottie와 Hoffmann(2006) 등은 남성과 여성이 부가의문문 사용시 기능이 서로 다른 부가의문문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Holmes(1992: 290), Coates와 Cameron(1988: 82) 등에 따르면, 남성은 불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해 부가의문문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부가의문문을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논문으로 BNC-S와 LSAC의 대규모 코퍼스를 사용하여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부가의문문을 살펴본 Tottie와 Hoffmann(2006)이 있다. Tottie와 Hoffmann(2006)은 영어를 우선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로 나눈 뒤, 부가의문문의 담화기능별, 남녀별, 나이별 특성을 각각의 항목별로 통계치를 추출하여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를 비교하고 있다. Tottie와 Hoffmann(2006)은 기존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각각의 변인별 분포 외에 변인들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분포는 다루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의 현상에 여러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별 변인과 나이 변인은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성별 변인에 학력 변인 또는 사적/공적 상황

변인을 더해서 검토할 경우에 어떤 분포가 그려지는가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변인의 개별적 분포뿐만 아니라 변인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분포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비로소 부가의문문의 사용에 대한 사회적 변인들의 종합적이고 완결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 III. 연구 자료 및 방법

#### 1. 연구 자료

##### 1) ICE-GB

본 연구에서는 약 100만 어휘의 영국 영어를 담은 대규모 코퍼스 ICE-GB (British component of the International Corpus of English)가 영어 부가의문문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적합한 코퍼스라고 판단되어 연구 자료로 선택하였다. ICE-GB는 중등 교육 이상을 받은 18세 이상의 영국 사람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1993년까지 3년 동안 녹음되고 편찬된 구어 및 문어의 영국 영어를 자료로 삼고 있다. ICE-GB는 검색 프로그램인 ICECUP 3.0과 함께 1998년 배포되었다<sup>3)</sup>.

ICE-GB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ICE-GB에 포함된 총 어휘 수는 1,061,264개이다. 100만 여개의 어휘 중에서 63만 여개는 구어 영어이고 42만 여개는 문어 영어이다. ICE-GB에는 500개의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텍스트는 여러 개의 샘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샘플을 ‘하위 텍스트’(subtexts)라고도 부른다. 전체 샘플 수는 1,001개이다. 각각의 텍스트는 평균 2,122개의 어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샘플 당 평균 어휘 수는 1,060개이다.

3)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별 영어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International Corpus of English(ICE) 프로젝트가 1988년 런던대학교의 Sidney Greenbaum에 의해 발기되어, 현재 20개 지역(예컨대, 호주, 말라위, 카메룬, 뉴질랜드, 캐나다, 나이지리아, 피지, 필리핀, 가나,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홍콩,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스리랑카, 아일랜드, 탄자니아, 자메이카, 미국, 케냐)의 ICE 프로젝트 연구팀이 이들 지역에서 산출된 구어 및 문어 영어에 대한 지역 변이 코퍼스를 준비하고 있다. 각 코퍼스간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은 동일한 코퍼스 틀과 문법 주석 형식을 따르고 있다(Nelson, Wallis & Aarts 2002).

	구어	문어	합계 / 평균
어휘 수	637,562	423,702	1,061,264
텍스트 수	300	200	500
샘플(하위 텍스트) 수	447	554	1,001
텍스트 당 평균 어휘 수	2,125	2,118	2,122
샘플(하위 텍스트) 당 평균 어휘 수	1,426	764	1,060
수형도 수	59,460	23,934	83,394
텍스트 당 평균 수형도 수	198	119	166
샘플(하위 텍스트) 당 평균 수형도 수	133	43	83

<표 1> ICE-GB 구성 체계 (Nelson, Wallis와 Aarts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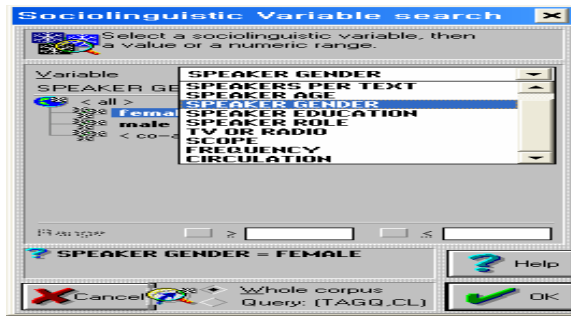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ICE-GB를 택한 구체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이유는 ICE-GB의 자료들이 모두 통사 분석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소개된 Tottie와 Hoffmann(2006)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삼은 코퍼스가 통사 분석이 되어 있지 않아, 코퍼스에서 부가의문문을 추출하는 것 자체가 주요 문제로 등장하였다. 반면 ICE-GB는 애초부터 완벽한 구문 분석을 목표로 하고 구축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ICECUP을 이용하여 관련 구문들을 추출할 수 있다. 구분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코퍼스로부터 관련 구문을 추출할 경우, 방법론에 따라 추출되는 자료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점과 비교된다.

ICE-GB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ICE-GB에 발화별로 중요한 사회적 변인이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림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화별로 화자의 나이, 성, 학력 등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추출하여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로는, ICE-GB 자료들이 영어의 전반적인 균형성을 염두에 두고 구축된 것이라는 점이다(Mair & Hundt 2001). 그렇기 때문에 각 개별적 특정 상황의 자료를 추출하기가 용이하다. 예를 들어, 구어 또는 문어 상황, 대화 또는 독백 상황, 공식 또는 사적 상황, 면대면 대화 또는 전화 대화 상황, 학교 수업 또는 방송 토론 상황 등에서 사용된 부가의문문이 필요할 경우, 각 개별 상황에 해당되는 부가의문문을 수월하게 추출할 수 있다.

ICE-GB와 관련하여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부가의문문의 단골 주제인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비교 연구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ICE-USA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 나타난 부가의문문의 사용 빈도를 보면, 영국 영어가 미국 영어에 비해 5-10배 많은

것으로 나와 있다 (Tottie & Hoffmann 2006: 288). 따라서 영국 영어를 1차 자료로 선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충분한 양의 기초 자료가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은 ICE-GB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ICE-GB에 표시된 사회적 변인

2) ICE-GB에서 추출한 부가의문문

ICE-GB에서 추출된 부가의문문은 총 753개이다. 이 중 대부분인 718개(95%)는 구어이고, 35개(5%)는 문어이다. 구어에는 직접 대화(direct conversations), 전화 통화(telephone calls), 수업(classroom lessons), 방송 토론(broadcast discussions), 방송 인터뷰(broadcast interviews) 등이 포함되었으며, 문어에는 사교 편지(social letters), 소설(novels and short stories)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어 부가의문문을 살펴보면, “I can write, can't I?”와 “Oops, now I have to think, don't I?”(일상적 사교 편지) 또는 “You're lying, Edward, aren't you?”와 “You like Christmas, don't you?”(소설) 등과 같이 대화체가 대부분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구어와 문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ICE-GB에서 추출한 부가의문문 753개를 본고에서는 성, 나이, 학력, 공적/사적 상황 등의 사회적 변인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처음에는 성별에 따른 부가의문문 사용을 살펴본 다음, ‘성별과 나이’, ‘성별과 학력’, ‘성별과 사적/공적 상황’ 등 두 가지 변인에 따른 부가의문문 사용을 살펴보았다. 이어 세 가지 변인(예컨대, ‘성별, 나이, 학력’, ‘성별, 나이, 사적/공적 상황’)에 따른 부가의문문의 사용 양상을 살펴본 후, ‘성별, 나이, 학력, 사적/공적 상황’의 네 가지 변인에 따른 부가의문문의 사용 양상을 검토하였다.

연구 자료의 추출은 검색 도구인 ICECUP에 의존하여 그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기능을 활용했으며, 또한 엑셀 등 기존 응용 프로그램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변인 상호간의 역학 관계를 도표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 2. 연구 방법: 추출 모집단을 고려한 가중치 부여

추출된 자료를 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추출된 숫자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ICE-GB에서 추출한 753개의 부가의문문 중에서 여성이 313개, 남성이 440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E-GB에서 추출된 부가의문문의 개수만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남녀 각각의 전체 분량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 두 집단별 전체 분량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를 남녀별로 비교해 보면 <그림 2> 및 <그림 3>과 같다.

SPEAKER GENDER	
ICE-GB	female
female	Where: ICE-GB
male	Texts: 437 Text units: 28,812
< co-authored >	Subtexts: 500 TU elements: 305,709
	Speakers: 532 Words: 284,262

<그림 2> ICE-GB 전체 자료에 따른 여성 사용 관련 정보

SPEAKER GENDER	
ICE-GB	male
female	Where: ICE-GB
male	Texts: 812 Text units: 53,426
< co-authored >	Subtexts: 949 TU elements: 732,094
	Speakers: 1,116 Words: 683,590

<그림 3> ICE-GB 전체 자료에 따른 남성 사용 관련 정보

<그림 2>와 <그림 3>이 보여주듯이, 남녀별로 구축된 자료의 양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도외시하고 남녀별로 추출된 숫자만 고려할 경우, 실제 현상을 왜곡하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녀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전체 자료의 양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전체 양으로 볼 때 남성의 자료가 여성의 자료에 비해 두 배 정도 된다는 점을 반영할 경우, 한 가지 방법은 남성 부가의문문의 숫자 440개를 그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로 변환해 주는 것이다.<sup>4)</sup> 이를 좀 더 정확한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위의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된 여러 수치 중에서 어느 것을 가중치

4) 여성 부가의문문의 개수를 2배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 이 둘은 결과적으로는 동일하다.



계산의 기본으로 삼아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코퍼스 규모를 비교할 때 기준으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인 ‘어휘’(words)(여성 284,262개 vs. 남성 683,590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문장에 해당하는 ‘텍스트 단위’(text units)(여성 28,812개 vs. 남성 53,426개)를 선택할 수도 있다. 부가의문문은 일반적으로 문장의 특성이 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텍스트 단위’를 비교의 기준으로 택했다(최재용 2009).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원’(raw) 자료와 함께 ‘가중치 부여’(weighted) 자료를 제시하여 남녀 사이의 사용상 차이를 드러내도록 한다.

## IV. 연구 결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CE-GB에서 753개의 부가의문문이 추출되었다. 이 중에서 여성이 313개, 남성이 440개의 부가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다. ICE-GB의 전체 모집단을 살펴보면 여성이 사용한 문장(<그림 2>의 text units 28,812개)에 비해 남성이 사용한 문장(<그림 3>의 text units 53,426개)이 두 배 가까이 되므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둔 수치(여성 313개, 남성 237개<sup>5)</sup>)를 사용한다(<표 3>참조). 본 연구는 먼저 사회적 변인별(예컨대, 성별, 나이, 학력, 사적/공적 상황) 자료를 추출해 가면서 남녀별 부가의문문 사용 빈도수를 살펴본 다음, 사회적 변인간 상호관계를 살펴본다.

### 1. 성별에 따른 부가의문문 사용

여성과 남성이 사용한 부가의문문의 빈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비교하였을 때, 여성(56.9%)이 남성(43.1%)에 비해 부가의문문을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표 3> 참조). BNC를 기반으로 비슷한 연구를 한 Tottie와 Hoffmann(2006)에서도 비슷한 결과(여성 4,209 pmw, 남성 4,647 pmw)가 나와 ICE-GB에서 추출된 자료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5) 남성 부가의문문 빈도 x (여성 전체 문장 수 ÷ 남성 전체 문장 수) = 440 x (28,812 ÷ 53,426) = 237 (소수점 이하 반올림했음)

	여성(raw)	남성(raw)	합계
부가의문문 문장 사용 수	313	440	753

<표 2> 성별 기준 (원 자료)

	여성(weighted)		남성(weighted)		합계	
부가의문문 문장 사용 수	313	56.9%	237	43.1%	550	100%

<표 3> 성별 기준 (가중치 자료)

2. 변인간 상호작용에 따른 부가의문문 사용

1) 두 가지 변인에 따른 부가의문문 사용

다음에서는 두 가지 변인(예컨대, ‘성별 및 나이’, ‘성별 및 학력’, ‘성별 및 사적/공적 상황’)을 함께 살펴볼 경우, 영어 부가의문문 사용에 어떤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1) 성별 및 나이

Tottie와 Hoffmann(2006)의 BNC 자료에 따르면 젊은 사람에 비해 나이 든 사람이 부가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컨대, 24세 이하는 3,000 pmw, 25세 이상은 5,000 pmw). Tottie와 Hoffmann(2006)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 중 누가 더 부가의문문을 많이 쓰고 있는지는 조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도 나이에 따라 부가의문문의 사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성에 따라 사용 양상이 반대로 나타났다. 가중치를 부여하여 나이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부가의문문 사용을 살펴본 결과, 40대 중반을 기점으로 남녀간 부가의문문의 사용 빈도가 서로 교차하는 양상을 보였다(<표 5> 및 <그림 4> 참조). 40대 중반 이전에는 여성의 부가의문문 사용 빈도가 남성보다 많지만, 40대 중반 이후에는 남성의 사용 빈도가 여성보다 많다. 즉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성의 부가의문문의 사용은 점점 줄어들고 남성의 부가의문문 사용은 점점 늘어나, 40대 중반부터는 역전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점은, <표 4>에서 보여주듯이, 66세 이상의 여성이 5명(전체 여성 부가의문문 사용자의 1.7%), 66세 이상의 남성이 23명(전체 남성 부가의문문 사용자의 6.0%)으로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자료가 매우 적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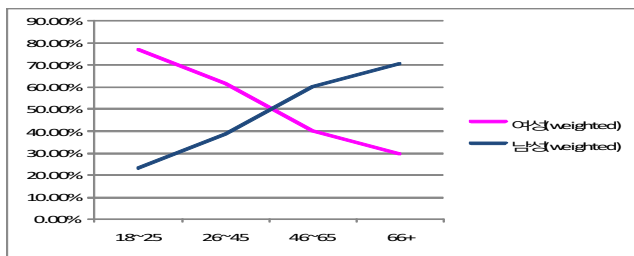
점을 감안해야 하긴 하지만, 남녀간 부가의문문 사용이 나이에 따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sup>6)</sup>.

나이	여성(raw)		남성(raw)		합계
18-25	125	41.9%	71	18.6%	196
26-45	111	37.2%	128	35.5%	239
46-65	57	19.1%	160	41.9%	217
66+	5	1.7%	23	6.0%	28
합계	298	100%	382	100%	680

<표 4> 성별 및 나이 기준 (원 자료)

나이	여성(weighted)		남성(weighted)		합계	
18-25	125	76.7%	38	23.3%	163	100%
26-45	111	61.7%	69	38.3%	180	100%
46-65	57	39.9%	86	60.1%	143	100%
66+	5	29.4%	12	70.6%	17	100%
합계	298		205		503	

<표 5> 성별 및 나이 기준 (가중치 자료)



<그림 4> 성별 및 나이 기준 (가중치 자료)

6) 본고에서 사용한 ICE-GB의 부가의문문은 모두 표준(canonical) 부가의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yeah, eh, innit과 같은 불변(invariant) 부가의문문이 코퍼스 자료에 포함된다면, 남녀간 사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Stenstrom 외(2002)에 따르면, 런던 지역에 사는 십대 아이들은 불변 부가의문문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 사용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보고한다(Tottie와 Hoffmann 2006 재인용). 본고의 남성도 어렸을 때는 불변 부가의문문을 사용하다가, 나이가 들어 표준 부가의문문으로 바꾸어 사용하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성별 및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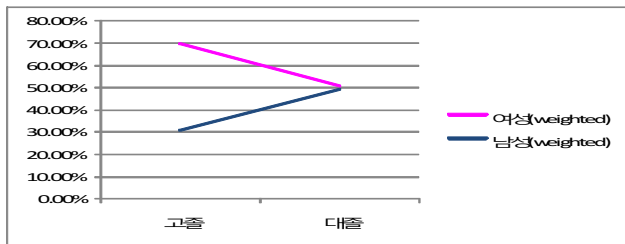
앞서 여성은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남성은 나이가 많을수록 부가의문문을 많이 사용했는데, 학력에 따라서도 남녀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고졸자 및 대졸자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부가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표 7> 참조). 학력이 낮은 경우에는 남녀의 차이가 39.0%로 매우 큰 편이었다. 그러나 학력이 높은 경우에는 1.4%로 남녀의 차이가 아주 미미하였다. 다시 말해, 저학력자의 경우에는 부가의문문을 사용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았으나, 고학력자의 경우에는 여성(50.7%)과 남성(49.3%)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학력	여성(raw)		남성(raw)		합계
고졸	87	32.5%	70	17.8%	157
대졸	181	67.5%	323	82.2%	504
합계	268	100%	393	100%	661

<표 6> 성별 및 교육 기준 (원 자료)

학력	여성(weighted)		남성(weighted)		합계	
고졸	87	69.5%	38	30.5%	125	100%
대졸	181	50.7%	176	49.3%	357	100%
합계	268		214		482	

<표 7> 성별 및 교육 기준 (가중치 자료)



<그림 5> 성별 및 학력 기준 (가중치 자료)

(3) 성별 및 사적/공적 상황

사적 상황인지 아니면 공적 상황인지에 따라서도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You can’t blame her for that really, can you?” 등과 같이 사적 상황(예컨대, 면대면 대화 또는 전화 대화)에서 부가의문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 남성은 “This is another memorandum of yours, isn’t it?” 등 공적 상황(예컨대, 방송 토론, 방송 인터뷰, 비즈니스 교류, 학교 수업, 법정 교차 심문, 또는 의회 토론)에서 부가의문문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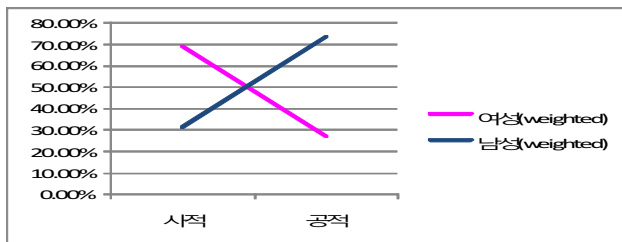
가중치를 부여한 <표 9>에 따르면, 사적 상황에서 여성(69.0%)이 남성(31.0%)보다 두 배 이상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적 상황에서는 남성(73.3%)이 여성(26.7%)보다 3배 가까이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은 사사로운 이야기를 할 때 남성보다 부가의문문을 더 많이 쓰지만, 공적인 상황에서는 남성보다 부가의문문을 훨씬 적게 사용한다.

상황	여성(raw)		남성(raw)		합계
사적	256	86.8%	215	51.9%	471
공적	39	13.2%	199	48.1%	238
합계	295	100%	414	100%	709

<표 8> 사적/공적 상황 기준 (원 자료)

상황	여성(weighted)		남성(weighted)		합계	
사적	256	69.0%	115	31.0%	371	100%
공적	39	26.7%	107	73.3%	146	100%
합계	295		222		517	

<표 9> 사적/공적 상황 기준 (가중치 자료)



<그림 6> 성별 및 사적/공적 상황 기준 (가중치 자료)

## 2) 세 가지 이상의 변인에 따른 부가의문문 사용

앞서 두 가지 변인을 함께 살펴본 결과, 나이·학력·사적/공적 상황에 따라 성별 부가의문문 사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나이와 사적/공적 상황에 따라서는 여성과 남성의 부가의문문 사용 양상이 서로 역전되고 있었다. 학력은 높을수록 남녀 차가 줄어들었다.

다음에서는 세 가지 변인(예컨대, '성별, 나이 및 학력', '성별, 나이 및 사적/공적 상황') 및 네 가지 변인(예컨대, '성별, 나이, 학력 및 사적/공적 상황')을 함께 살펴볼 경우, 부가의문문 사용이 어떤 양상을 띠게 되는지를 분석한다.

## (1) 성별, 나이 및 학력

성별, 나이 및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비교적 젊은 나이(18세-45세)에서는 학력에 상관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부가의문문을 큰 폭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표 11> 참조).

그런데 사회에서 중책을 맡게 된다고 여겨지는 46세부터는 학력이 높은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부가의문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즉 46세-65세의 경우, 대졸 남성(74.7%)은 대졸 여성(25.3%)보다 거의 3배에 가까운 부가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다. 66세 이상의 경우에는 대졸 남성이 대졸 여성에 비해 10배 정도 되는 부가의문문을 사용한다.

그러나 고졸자의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부가의문문을 많이 쓰고 있다. 45세-65세의 경우 고졸 여성(66.7%)은 고졸 남성(33.3%)보다 2배 이상의 부가의문문을 쓰고 있으며, 66세 이상의 경우에는 고졸 여성(57.1%)이 고졸 남성(42.9%)보다 부가의문문을 약간 더 많이 쓰고 있어, 성별, 나이 및 학력이 부가의문문 사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 (2) 성별, 나이 및 사적/공적 상황

앞서 46세 이상 된 대졸자 중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부가의문문을 3배-10배 정도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가 사적 또는 공적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이	학력	여성(raw)		남성(raw)		합계
		고졸	대졸	고졸	대졸	
18-25	고졸	43	16.0%	34	9.4%	77
	대졸	68	25.4%	35	9.7%	103
26-45	고졸	22	8.2%	10	2.8%	32
	대졸	87	32.5%	105	29.1%	192
46-65	고졸	18	6.7%	16	4.4%	34
	대졸	25	9.3%	138	38.2%	163
66+	고졸	4	1.5%	5	1.4%	9
	대졸	1	0.4%	18	5.0%	19
	합계	268	100.0%	361	100.0%	629

<표 10> 성별, 나이 및 학력 기준 (원 자료)

나이	학력	여성(weighted)		남성(weighted)		합계	
		고졸	대졸	고졸	대졸	고졸	대졸
18-25	고졸	43	70.5%	18	29.5%	61	100%
	대졸	68	78.2%	19	21.8%	87	100%
26-45	고졸	22	81.5%	5	18.5%	27	100%
	대졸	87	60.4%	57	39.6%	144	100%
46-65	고졸	18	66.7%	9	33.3%	27	100%
	대졸	25	25.3%	74	74.7%	99	100%
66+	고졸	4	57.1%	3	42.9%	7	100%
	대졸	1	9.1%	10	90.9%	11	100%
	합계	268		195		463	

<표 11> 성별, 나이, 학력 기준 (가중치 자료)

가중치가 부여된 <표 13>을 살펴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여성은 남성보다 사적 상황에서 그리고 남성은 여성보다 공적 상황에서 부가의문문을 더 많이 쓰고 있다. 18세-25세의 경우, 여성은 공적 상황에서 부가의문문을 쓴 경우가 한 번도 없었으나, 남성은 공적 상황에서 100% 부가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었다. 26세부터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공적 상황에서 여성의 부가의문문 사용은 점차 감소(40.9%→20.3%→0%)하고 있는 반면 남성의 부가의문문 사용은 점차 증가(59.1%→79.7%→100%)하고 있어, 성별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이	사적/공적	여성(raw)		남성(raw)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8-25	사적	116	42.2%	60	16.3%	176
	공적	0	0.0%	8	2.2%	8
26-45	사적	83	30.2%	75	20.4%	158
	공적	18	6.5%	49	13.4%	67
46-65	사적	41	14.9%	59	16.1%	100
	공적	13	4.7%	94	25.6%	107
66+	사적	4	1.5%	5	1.4%	9
	공적	0	0.0%	17	4.6%	17
		275	100.0%	367	100.0%	642

<표 12> 성별, 나이, 사적/공적 상황 기준 (원 자료)

나이	사적/공적	여성(weighted)		남성(weighted)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8-25	사적	116	78.4%	32	21.6%	148	100%
	공적	0	0%	4	100%	4	100%
26-45	사적	83	67.5%	40	32.5%	123	100%
	공적	18	40.9%	26	59.1%	44	100%
46-65	사적	41	56.2%	32	43.8%	73	100%
	공적	13	20.3%	51	79.7%	64	100%
66+	사적	4	57.1%	3	42.9%	7	100%
	공적	0	0%	9	100%	9	100%
		275		197		472	

<표 13> 성별, 나이, 사적/공적 상황 기준 (가중치 자료)

(3) 성별, 나이, 학력 및 사적/공적 상황

성별, 나이, 학력 및 사적/공적 상황 등의 네 가지 사회적 변인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대체적으로 젊은 나이인 18세-25세에는 학력, 사적/공적 상황에 관계없이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부가의문문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26세-45세의 경우, 사적 상황에서 학력에 상관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부가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했으나, 공적 상황에서는 대졸 남성이 대졸 여성보다 부가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시점부터 공적 상황에서 남성의 부가의문문 사용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하고 있다. 공적 상황에서 26세-45세에는 대졸 남성이 56.4%의 부가의문문을 썼는데, 46세-65세에 들어서는 85.0%로 부가의문문 사용이 큰 폭으로 늘었다. 66세 이상의 자료가 적기는 하지만, 남성은 100% 부가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었다.



사적 상황에서도 대졸 남성의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부가의문문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8세-25세에서는 22.1%, 26세-45세에서는 35.1%, 46세-65세에서는 58.8%, 66세 이상에서는 100%이다. 앞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력이 남성의 부가의문문 사용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나이	사적/공적	학력	여성(raw)		남성(raw)		합계
18-25	사적	고졸	35	13.8%	23	6.6%	58
		대졸	67	26.4%	35	10.1%	102
	공적	고졸	7	2.8%	8	2.3%	15
		대졸	1	0.4%	0	0.0%	1
26-45	사적	고졸	21	8.3%	10	2.9%	31
		대졸	61	24.0%	61	17.5%	122
	공적	고졸	1	0.4%	0	0.0%	1
		대졸	17	6.7%	41	11.8%	58
46-65	사적	고졸	13	5.1%	16	4.6%	29
		대졸	14	5.5%	38	10.9%	52
	공적	고졸	4	1.6%	0	0.0%	4
		대졸	9	3.5%	94	27.0%	103
66+	사적	고졸	4	1.6%	4	1.1%	8
		대졸	0	0.0%	1	0.3%	1
	공적	고졸	0	0.0%	1	0.3%	1
		대졸	0	0.0%	16	4.6%	16
			254	100.0%	348	100.0%	602

<표 14> 성별, 나이, 사적/공적 상황, 학력 기준 (원 자료)

나이	사적/공적	학력	여성(weighted)		남성(weighted)		합계	
18-25	사적	고졸	35	74.5%	12	25.5%	47	100%
		대졸	67	77.9%	19	22.1%	86	100%
	공적	고졸	7	63.6%	4	36.4%	11	100%
		대졸	1	100%	0	0%	1	100%
26-45	사적	고졸	21	80.8%	5	19.2%	26	100%
		대졸	61	64.9%	33	35.1%	94	100%
	공적	고졸	1	100%	0	0%	1	100%
		대졸	17	43.6%	22	56.4%	39	100%

46-65	사적	고졸	13	59.1%	9	40.9%	22	100%
		대졸	14	41.2%	20	58.8%	34	100%
	공적	고졸	4	100%	0	0%	4	100%
		대졸	9	15.0%	51	85.0%	60	100%
66+	사적	고졸	4	66.7%	2	33.3%	6	100%
		대졸	0	0%	1	100%	1	100%
	공적	고졸	0	0%	1	100%	1	100%
		대졸	0	0%	9	100%	9	100%
			254		188		442	

<표 15> 성별, 나이, 사적/공적 상황, 학력 기준 (가중치 자료)

### V. 결론 및 제언

부가의문문의 사용 실태는 Lakoff(1975)의 논문이 발표된 후부터 지난 30여년 동안 특히 여권 운동과 관련하여 큰 이론적 논쟁의 불씨가 되어왔다. 어떤 연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부가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하고, 또 어떤 연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부가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이고자 하였다. 또 다른 연구는 여성과 남성이 부가의문문을 쓰는 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존의 논문들이 주관적 통찰력 또는 소규모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비해, Tottie와 Hoffmann(2006)은 대규모 자료인 BNC 및 LSAC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여 신뢰할 만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의 차이에 주 초점을 두고 있어, 남녀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부가의문문을 약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본고는 대규모 코퍼스인 ICE-GB를 바탕으로 성별간의 차이에 주 초점을 맞추었다. 여성과 남성이 나이, 학력, 사적/공적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우선 성별로 볼 때, Tottie와 Hoffmann(2006)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보다 부가의문문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치를 부여하면 여성은 56.9% 그리고 남성은 43.1%를 사용하고 있다. 나이에 따라서는 남녀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은 젊었을 때 부가의문문을 많이 쓰지만, 남성은 나이가 들어서 부가의문문을 많이 쓴다. 즉 40대 중반을 기점으로, 40대 중반 이전에는 여성이 부가의문문을 더 많이 쓰고, 40대 중반 이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도 남녀의 부가의문문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고졸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의 부가의문문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졸자의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대졸자의 경우, 부가의문문 사용이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적인 상황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의 부가의문문을 사용한 반면, 공적인 상황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거의 3배 정도의 부가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여성과 남성이 부가의문문을 사용하는 상황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남성은 공적 상황에서 고학력 중장년층이 부가의문문을 많이 쓰는 점으로 미뤄보아, 남성의 부가의문문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여성은 사적 상황에서 저학력 젊은층이 부가의문문을 많이 쓰고 있어서, 여성의 부가의문문을 높은 사회적 지위와 관련지어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Holmes(1983, 1984, 1995), Algeo(1988, 1990, 2006), Coates(1996, 2004), Tottie와 Hoffmann(2006) 등이 지적하였듯이,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부가의문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Holmes(1983)에 따르면, 남성은 지시적(referential) 부가의문문(61%)을 가장 많이 쓰나, 여성은 촉진적(facilitative) 부가의문문(59%)을 가장 많이 쓴다고 보고한다. 화자가 주장하고 있는 진술의 정확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시적 부가의문문은 공적 상황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을 대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촉진적 부가의문문은 사적 상황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보여준 남녀 부가의문문 사용의 뚜렷한 성별 대비가 과연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부가의문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지를 추후 연구에서 조사해보면, 남녀간의 부가의문문 사용 패턴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본고에서 사용한 ICE-GB 부가의문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두 표준(canonical) 부가의문문이다. 남성의 부가의문문 사용 빈도가 젊었을 때 저조한 것은 코퍼스 자료에 불변(invariant) 부가의문문(예컨대, yeah, eh, innit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런던 지역의 십대 아이들은 불변 부가의문문을 많이 사용하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불변 부가의문문 사용이 감소된다고 보고한 Stenstrom 외(2002)처럼(Tottie와 Hoffmann 2006 재인용), 본고의 남성도 어렸을 때는 불변 부가의문문을 사용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표준 부가의문문으로 바뀌어 사용하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젊은 남성층에서 부가의문문의 사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코퍼스 구축으로 인해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연구하는 한국인 학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장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영어를 연구하는데 있어 직관에 의존하는 경우, 영어 모어 화자들에 비해 비모어 화자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나, 코퍼스를 활용하면 1차 자료 추출시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용진(2007: 51)이 지적하듯이, 영어를 가르치는 비모어 화자 교육자에게 코퍼스는 중요한 정보의 창고가 될 수 있다. 영국인 화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본고의 코퍼스 결과를 앞으로의 연구에서 한국인이 사용하는 영어 부가의문문과 비교하면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그 비교 결과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용진 (2007). 사회언어학적 코퍼스 분석의 실제. 서울: 도서출판 올린책상.
- 최재웅 (2009). 언어자원 활용: 핵심어 추출 및 응용. 한국영어교육연구학회·영어학학회 가을학술대회 발표논문. 경북대학교 우당교육관.
- Algeo, J. (1988). The tag question in British English: It's different i'n'it? *English World-Wide* 9, 171-191.
- Algeo, J. (1990). It's a myth, innit? Politeness and the English tag question. *The State of the Language*. 443-450.
- Bernard, J. (1982). *The Female World*. New York: The Free Press.
- Cameron, D. (1992). *The Feminist Critique of Langua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ameron, D., McAlinden, F., & O'Leary, K. (1989). Lakoff in context: The social and linguistic functions of tag questions. In D. Cameron and J. Coates (eds.). (1989). *Women in Their Speech Communities*. 74-93. London: Longman.
- Coates, J. (1996). *Women Talk*. Cambridge, MA: Blackwell.
- Coates, J. (2004). *Women, Men and Language: A Sociolinguistic Account of Gender Differences in Language* (3rd ed.). Harlow: Pearson Longman.
- Coates, J. & Cameron, D. (eds.). (1988). *Women in Their Speech Communities: New Perspectives on Language and Sex*. London: Longman.

- Dubois, B. L. & Crouch, I. (1975). The question of tag questions in women's speech: They don't really use more of them, do they? *Language in Society* 4, 289-294.
- Eckert, P. & McConnell-Ginet, S. (2003). *Language and Gend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lmes, J. (1983). The functions of tag questions. *English Language Research Journal* 3, 40-65.
- Holmes, J. (1992).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Learning about Language*. London: Longman.
- Holmes, J. (1995). *Women, Men and Politeness*. White Plains, NY: Longman.
- Lakoff, R. (1975). *Language and Woman's Place*. New York: Harper and Row.
- Mair, C. & Hundt, M. (eds.) (2001). *Corpus Linguistics and Linguistic Theory*. Amsterdam: Rodopi.
- McMillan, J. R., Clifton, A. K., McGrath, D., & Gale, W. S. (1977). Woman's language: Uncertainty or interpersonal sensitivity and emotionality? *Sex Roles* 3(6), 545-549.
- Nelson, G., Wallis, S., & Aarts, B. (2002). *Exploring Natural Language: Working with the British Component of the International Corpus of English*.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Newcombe, N., & Arnkoff, D. B. (1979). Effects of speech style and sex of speaker on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239-1303.
- O'Barr, W. M., & Atkins, B. K. (1980). 'Women's language' or 'powerless language'? In S. McConnell-Ginet, R. Borker and N. Furman (eds.), *Women and Language in Literature and Society*, 93-110. New York: Praeger.
- Sachs, J. (1987). Preschool boys' and girls' language use in pretend play. In S. U. Philips, S. Steele and C. Tanz (eds.), *Language, Gender and Sex in Comparative Perspective*, 178-18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egler, D. M., & Siegler, R. S. (1976). Stereotypes of males' and females' speech. *Psychological Reports* 39, 167-170.

Tottie, G., & Hoffmann, S. (2006). Tag questions in British and American English.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34, 283-311.

김혜숙

hskim@konyang.ac.kr

Received in March, 2010

Reviewed in April, 2010

Revised version received in May, 2010